

“주민들 응집력 뛰어나고 재물 넘치는 곳”

■ 해상왕국 꿈꾸는 완도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상서로운 기운이 응결된 땅을 하늘이 인간 세상에 내린 축복이라고 여겼다. 그 가운데에서도 자손을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는 근원으로서의 영천수, 즉 하나의 생명을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는 신령한 곳을 골라서 자자후손으로 터를 일구어 왔다.

나라의 도읍이나 종묘를 아무 데나 정하지 않는 것처럼, 개인의 거택 또한 바람을 감추면서 물을 얻고, 하늘과 땅의 기운이 모여드는 복된 땅을 찾아 집을 짓고 살았던 것이다. 더욱이 한 집안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고 믿는 조상의 묘지에 있어서 장풍득수(藏風得水)는 물론이고, 해와 달과 별의 기운이 조음하면서 그 기운으로 불특수가 응결되어있는 복된 땅을 골라 장사지내고자 하였다. 그것은 자손 가운데 수 만석의 부를 일구어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위대한 인간정신의 발현으로 세속의 혼탁한 삶을 제도하는 도학군자(道學君子)나 성인이 탄생하여, 가문의 영예가 만대에 이어지기를 소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복된 땅이 바로 풍수적인 명당인 것이다.

다섯마리 용이 구슬을 다루는 형세

복극성, 또는 복두칠성 같은 특별한 별들의 상서로운 기운이 땅에 서리고 응결된 혈궁에서만 특별한 부자와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자, 그리고 성현이 탄생할 수 있다는 믿음은 소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풍수적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늘에는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궁궐이 있고, 그 궁궐들의 주변에 옥황상제를 보필하는 다섯 왕들이 사는 별궁이 있으며, 그 경계를 높은 담장으로 둘러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원이라고 한다. 이를 가운데에서도 특히 옥황상제의 침궁으로 알려진 ‘자미원’과 정사를 보는 ‘태미원’ 그리고 시장터인 ‘천시원’을 삼원대국(三垣大國)이라 하여 특별히 귀하게 여긴다.

전라도 풍수가 바뀌고 있다

♣ 땅의 숨결을 따라 <23>



완도는 주도(珠島)가 다정하고 공손하게 허리를 굽혀 주인을 받드는 모양의 일주안을 이루고 있어서 풍수적으로 아름답기 그지없다. 주도 전경

천시원에는 다시 천제장과 수렵장, 그리고 천시장으로 나뉘는데, 해남군 일대를 천시원의 사냥터라고 한다면, 진도는 ‘사냥’의 성공과 사냥꾼들의 안녕을 위해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천궁과 소도(蘇塗)의 천제장(天祭場)터이다. 완도는 수렵으로 얻은 포획물의 거래와 교역이 이루어지는 시장터이다. 그래서 진도에는 각종 담과 굿으로 펼쳐지는 사머니즘의 찬란한 문화가 반면이 이어져오고 있다. 해남에는 굳건한 지방 토호세력이 형성되어 있고, 완도에는 서남해안

에서 생산되는 각종 해조류와 어패류의 집산지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풍수적 형세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그것은 해남이 기치창검과 병마로 상징되는 엄정성과 과군성이 대세를 이루는 지형이라면, 진도는 탐랑성 가운데 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을목(乙木)의 산세이며, 완도는 역량이 대단히 큰 무곡성과 우필좌보성이 진산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완도의 읍기는 다섯 마리의 용이 서로 구슬을

다투는 오룡쟁주격(五龍爭珠格)으로 균형을 비롯한 각 관공서가 대부분 길지에 위치하고 있다. 상가와 중심도로가 곤좌간향(坤坐艮向)으로 개설되어 주도(珠島)가 다정하고 공손하게 허리를 굽혀 주인을 받드는 모양의 일주안을 이루고 있어서 풍수적으로 아름답기 그지없는 형국이다.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주민들의 단합된 공동체 의식과 응집력이 뛰어난 성정으로 인문과 예학을 숭상하고, 자손 대대로 재물이 넘치는 등 ‘완도(莞島)’라는 글자의 의미처럼 항상 즐겁게 웃으면서 살 수 있는 땅이다.

특히 완도의 진산(鎭山)인 상황봉의 중심맥이 신술용(辛戌龍)으로 위외굴곡하면서 낙맥이고 천하의 대명당이 유좌묘향(酉坐卯向)의 양택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곳이 바로 장좌리로 옛 청해진이다. 신지면과 고금면, 그리고 약산면을 이루는 완도군의 부속 도서들이 호종사(護從砂)로 그림처럼 동동 떠 있고, 상가래와 계약을 위해 필요한 각종 물형으로서의 사격(砂格), 즉 장부를 쓸 때 사용하는 붓을 상징하는 기장필(記帳筆), 축축하면서 기름이 넘치는 인주를 의미하는 부수면, 도장을 담아두는 인상, 책상을 의미하는 케 등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珠島, 허리 굽혀 주인 받드는 모양

풍수적으로 국가경제를 좌우할 만큼의 대부가 나오기 위해서는 붓과 도장은 명당의 당국에서 보이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매매계약서를 쓸 때에 가장 중요한 붓과 도장은 항상 금고 속에 보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당 밖에서 암공(暗拱)해야 하는 법이다. 그렇지 않고 붓과 도장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으면, 부자가 탄생하는 땅이 아무리 아름답게 개국했다 할지라도 작은 고을의 ‘동네부자’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장좌리에서 명당의 형국을 살펴보면 실제로 보이는 않지만, 주도가 인상(印箱)이며, 동방봉과 남망봉, 그리고 서망봉 등이 기장필에 해당된다.

/전중주 호남대 교수·한국 풍수지리학회 학술연구위원

■ 전라도 역사이야기

-임자도에 전해진 청나라 佛書

조선시대 中 표류선에 화엄경·금강경 등 실려

삼국시대에 중국을 통하여 불교가 전래된 이래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불교 교류는 대단히 활발했다.

두 나라 왕실은 불경과 불상 등을 선물하며 불교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했고, 수많은 승려들이 직접 유학하거나 서로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불교사상에 대한 이해를 서로 주고 받았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와 불교가 배척되면서 두 나라 사이의 불교 교류는 더 이상 지속되지 못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중국과의 불교 교류가 단절됐으므로 중국 불교계의 동향이나 새로 간행된 불교서적들이 국내 불교계에 전해질 수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불교계와 접촉하여 침체된 불교교학 연구에 새바람을 불어온 사건이 17세기 후반 신안군 임자도에서 발생했다.

1681년 어느 날 중국 배 한 척이 태풍에 떠밀려 임자도에 표착하였는데, 배 안에는 중국에서 간행한 불교문헌들이 가득 실려 있었다. 당



신안 임자도 포구

시 순천 송광사에 주석하고 있던 백암성총(柏庵性聰) 선사(1648~1710)는 이 소식을 듣고서 곧바로 임자도로 달려가 이 책들을 수습하였는데 거기에는 화엄경과 금강경, 대승기신론의 주석서들을 비롯하여 선종과 정토종 관련 주요 문헌들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이 책들 중에는 종래 우리나라에 전래되지 않은 것이 많았고, 예전에 전래됐어도 이미 구해보기 어렵게 된 책들이 적지 않았다. 이에 성총선사는 이 책들을 토대로 불교사상을 새롭게 정리하여 강의하는 한편 낙안의 정광사와 하동의 상계사에서 15년간에 걸쳐 모두 새롭게 판각하여 간행하였다.

그리고 이 책들은 곧바로 조선의 대부분 사찰에 퍼져서 많은 승려들에 의해 읽히게 되었다.

임자도에 표착한 배에 어떤 사정으로 불교서적들이 실려 있었는지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역불정책과 중국 불교와의 단절로 극도로 침체되어 있던 조선의 불교계에 이 책들이 미친 영향은 결코 적지 않았다. 성총선사는 조선후기 불교교학 활성화를 주도한 핵심적 인물로서 그의 노력을 통해 교학 특히 화엄경에 대한 연구가 크게 성행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임자도에서 습득한 중국 문헌의 영향도 적지 않았던 것이다.

/최연식 목포대학교

■ 전라도 방언 (22)

“꼬시 이뿌게도 피었네”

우리말은 어떤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한 조사나 어미·접미사가 결합될 경우에 앞말의 받침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는 것이 표준이다. 즉 짓이(저지), 짓을(저을), 낫이(나치), 낫에(나체), 무릎이(무르피), 무릎에(무르페), 값이(갑시)의 예와 같다.

그런데 전라도방언에서는 우선 파찰음 ‘ㅅ·ㅈ’ 받침을 광양방언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찰음 ‘ㅅ’으로

발음한다. “빛을(비슬) 지다. 짓이(저시) 불었다. 낫이(나시) 길다. 낫이(나시) 익다. 꽃이(꼬시) 피었네. 숯이(수시) 겹다”처럼, ‘ㅈ’이 ‘ㅅ’으로 구개음화한 말도 그렇다. 밭이(바치→바시), 팔이(파치→포시), 벌이(버치→버시) 등.

그런데 광양방언은 표준어처럼 본음을 유지한 점이 특색이다. 즉 ‘ㅅ, ㅈ’ 받침 뒤에 ‘이, -은, -을, -에, -으로’ 등이 이어질 때 음가대

로 발음된다는 말이다. 짓으로(저즈로), 꽃에(꼬체), 팔이(파치) 등. 또 ‘ㅋ, ㅌ’ 받침은 ‘ㄱ, ㄴ’으로 발음한다. 부위에(부어게), 앞이(이비), 짚을(지블), 겹받침도 전라도방언에서는 홀자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예사이다. “값이(가비) 너무 비싸요. 낫이(너기) 나가부렀당께. 품쌈은(품쌈꾼) 열매나 준다요/준다우?”라는 예만 들어도 알 것이다. /이돈주 전남대 명예교수

■ 남도 야생화

-은방울꽃

백합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식물로 산지 풀밭에서 자라며, 키는 20cm 내외, 남부와 중·북부지방에 걸쳐 분포하고 개화 시기는 5~6월이다.

조그맣게 생긴 꽃이 바람에 흔들리면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아름다운 꽃이며 향수원료로 쓰인다.

/라규재 생태사자



Advertisement for '시몬스침대' (Simons Bed) featuring various bed models and promotional text. The ad includes the slogan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Stable comfort) and lists several bed models with their prices and features.

Advertisement for '토치 광주총판' (Torch Gwangju General Dealer) for office furniture. The ad features the 'TORCH' logo and displays various office chairs and desks.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Gwangju branch.